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4, 요한복음 1:19-2:12

© 2024 David Turner 및 Ted Hildebrandt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4과, 요한의 증언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19-2:12.

안녕하세요, David Turner님, 우리는 성경적 전자 학습을 위한 John 비디오 시리즈의 네 번째 비디오를 작업 중입니다. 우리는 방금 요한복음의 서문에 대한 비디오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매우 신중하게 서문을 구성하고 배치하는 방식을 살펴보며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줄 주제를 조심스럽게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John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프롤로그는 내러티브와는 다소 다른 장르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한 에피소드나 한 장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역사적 움직임을 더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토리를 스토리로 해석하기 위해 각 비디오에서 하나 이상의 장면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장면별로 촬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요한복음의 장르와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할부로 나누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 경험한 인생의 어떤 무작위적인 이유로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을 무작위로 골라내는 대신 요한은 물론이고 성경의 어떤 이야기 책이라도 볼 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맥락에서 그 구절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그 구절을 멋진 글꼴로 붙이고 부엌 벽에 명판에 붙입니다.

판화를 피하고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로 살펴보고 그런 종류의 작업을 수행한 후에 필요하다면 명판을 구성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디오에서 요한복음의 1장 19절부터 2장과 12절까지의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페리코프 비디오에서는 먼저 이야기 흐름을 논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에 흥미로운 점이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 구조에서 배열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 이야기에서 가치 있고 흥미로운 내용을 골라 추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문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배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역사적 또는 지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주석적이고 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본문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되었는지 생각해 보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공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장 12절까지의 서술적 흐름을 보기 시작할 때, 책의 프롤로그에서 언급되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지적하기 시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그것은 일종의 우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이 진행됨에 따라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의 제자들이 메시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따르러 갑니다.

3장에는 그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요한의 이후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1장에서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요한이 자신의 간증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 광야로 나온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가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하세요. 분명히 예루살렘 당국에 보고가 들어왔고 그들은 그곳 사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로마에 반기를 들기 쉬운 대중적인 메시아 운동을 두려워했고, 그것에 대해 알고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9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요한의 간증이 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프롤로그에서 요한의 간증에 대해 들었고 이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단어는 요한의 간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언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고 그래서 우리는 목록을 확인하는 흥미로운 심문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메시아 수표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해당 상자를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해당 상자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은 글썩요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자의 전부였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은 이사야의 말로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니라. 주님의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사야 40장을 참조하면, 이사야는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 말하고 주님의 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광야의 언덕과 계곡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에게 그의 세례에 관해 질문했고 그는 26절에서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때때로 나는 그의 신발을 빗낼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은 다른 문화적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때 요한의 간증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예수를 묘사하기 위해 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는 아마도 유월절과 양과 관련된 다른 모든 성전 희생에 초점을 맞춘 희생 양에 관한 구약의 모든 언어를 연상시킵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세상에서 죄를 제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길을 풀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 두 가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33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에 관해 말씀하실 때 요한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고별 담화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이어갈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간증은 그가 구속주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성령이 그 위에 내려와 남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입니다(33절). 나는 성령이 내려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John이 정확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상상했는지는 John에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관복음에서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신현의 어떤 것이 있었다는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와 비둘기 이야기는 여기 요한복음에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은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비둘기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단지 비유일 뿐인지는 구절에서 나에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32 그러나 그는 내가 안다고 말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그분께 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들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35절부터 42절까지에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43절부터 51절까지에서 빌립과 나dana엘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교류하고 서로 어떻게 교류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처음 두 동료인 안드레와 베드로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서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는데, 이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왔다고 말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당신은

그것이 사물을 설명하는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와서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이 끝나고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나사렛에서 아무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논평했을 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놀랐다면 너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무 것도 보지 못하였으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흥미로운 점은 39절이 오면 51절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처음 두 사람인 안드레와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는 43절과 그 다음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떠나시기로 작정하시고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벳새다라는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기록한 그 분을 우리가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의 대답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말했고 그것을 조금도 달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외쳤고 빌립은 그냥 와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46절에서 반복해서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3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다나엘이 다가와서 '이 사람은 참으로 간사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자신의 마음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깨달았으며 심지어 자신이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랍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대중 문화에서 항상 듣는 표현인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여기 마지막 말로 그에게 말씀 하십니다. 1장 51절 그는 일종의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에서 야곱의 경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첫 제자인 안드레아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도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무시했던 것, 즉 예수께서 42 절에서 베드로를 언급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네가 시몬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아람어로 게바라 불릴 것입니다. 분명히 케파는 그리스어 베드로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나중에 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을 받아들인 후 우리는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고 그곳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게 만드는 당황스러운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국과 세계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고대 문화에서 와인의 역할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일부는 종교적 원칙으로 모든 종류의 알코올 음료를 금하도록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 가족과 지역 사회에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술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술은 단순히 생활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도원이 있고 포도가 있으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지만 충분히 빨리 먹을 수 없고 잘 보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와인을 만들어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대에는 물을 똑바로 마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큰 종교적인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의 주인, 특히 잔치를 주최하는 신부의 아버지나 잔치를 주최하는 신랑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면 편의점에 가서 새 포도주를 사거나 무엇이든 사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다음 마을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주 빨리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숨겨진 방법으로 해결책을 다루십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리지도 않은 채 돌그릇에 담긴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에는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았습니다(9절).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께서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자 연회장은 연회장을 불러 신랑은 모두 옆으로 치우고 다른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얼마 동안 술을 마시고 아마도 더 싼 포도주보다 분별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아껴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마도 물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테이프에서 방금 보았던 프롤로그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인 계시로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해석이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행위를 통해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고대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생활의 문제이자 예언적 예언의 문제로 사용되었던 방식 때문에 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자들이 119에서 212까지의 이 부분을 살펴본 한 가지 방법을 살펴보고 여러분을 위해 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한이 새 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에게 전하는 프롤로그를 보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셨던 것처럼 세상에 빛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 번 세상에 빛과 생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요한의 서문에서 창조의 새신, 갱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1장 19절부터 2장 12절까지에서 우리가 7일 동안의 새 창조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1시 19분부터 28일까지는 하루가 되고 다음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되고 그 다음 셋째 날에는 4 더하기 3이 7이 됩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는 그 첫 주의 끝이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새 창조의 7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John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므로 나중에 살펴보고 싶다면 자신의 연구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일부 지리적 세부 사항에는 적어도 광야에 있는 요한을 방문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있으며, 요르단 건너편 베다니, 갈릴리, 벳새다, 가버나움 및 가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 잔치가 있습니다.

요한이 사역하던 곳에서 일찍이 요한을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대표자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사해 북동쪽에서 사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야르무크 강 지역에서 사역했다고 생각하며, 나중에 요한복음 10장의 끝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지역에 다시 오실 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갈릴리 바다의 약간 동쪽 북쪽에 있는 벳새다 마을에 대한 언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사해, 갈릴리 바다, 그리고 물론 가나 마을을 가리켜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지리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고대 갈릴리 가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3마일 떨어진 마을입니다. 전통적으로 갈릴리 가나와 연관되어 왔습니다.

그 이름이 아마도 신약성서에서 유래한 가나(Can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실제로 결혼식 교회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 여기 발코니에

있는 결혼식 교회에는 멋진 라틴어 비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 있는 동상에 대한 캡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지하에는 기도를 위한 성지로 변한 흥미로운 오래된 석조 그릇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꼭대기에 있는 선반에 기도를 남길 것입니다. 나는 고고학자들이 이 오래된 돌 그릇이 요한복음 2장에서 사용되었을 그릇의 유형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그릇은 랍비 율법에 따르면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불순물을 획득하지 않았으며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도자기 그릇은 어떤 종류의 의식적 불결함을 묻는다면 깨뜨려 버려야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또 다른 교회에도 비슷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이전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였지만 그곳에서는 또 다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Cana)로 추정되는 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예수 시대의 유물이 있는 몇 군데의 다른 장소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본문에서 가버나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972년 발굴 직후의 가버나움의 항공 사진이 있습니다.

이곳의 팔각형 구조는 전통적으로 베드로의 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낮은 유적 위에 고대 기념관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그 전통은 초기 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가버나움의 회당인 백색 회당이라고도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이 회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폐허에서 볼 수 있는 회당은 3~4세기의 것이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이 회당이 아마도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이전 회당의 기초 위에 세워졌을 것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이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다 보이는데, 여기에서 고대에 베드로를 위한 팔각형 기념 구조물이 세워졌던 이전의 직사각형 돌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회당이 될 것이고 마을의 나머지 부분은 그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성 베드로의 집이 더 가까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2차 기념물이 그 위에 세워지기 전에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보여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이후로 전통적인 베드로의 집인 베드로의 집 꼭대기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현장에서 복구한 빌딩 블록을 사용하여 회당을 어느 정도 복원하고 원래 있던 위치로 되돌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버나움을 본다면 관광객으로 이스라엘에 가신다면 바로 여기 이 단계를 밟아 이곳 교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센터가 열려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베드로의 전통 가옥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유적 중 일부에 다윗의 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바위가 달린 언약궤의 흥미로운 묘사만큼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초기의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토라에 따라 지어졌어야 했던 방식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를 지리학에서 요한의 증언으로 옮겨가는 것을 생각할 때, 프롤로그에서 요한에 관해 우리가 들었던 내용과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차리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서문에서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들었고 15절에서는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가 1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 내용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보라, 내가 아니라 다른 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영이 강림하여 머무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찾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요한의 간증은 여기에서 매우 분명하며 나중에 3장과 5장에서, 심지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매우 흥미로운 메시아 관련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전체 비디오 시리즈를 가져와서 이 제목이 말하는 내용을 전개할 수도 있지만, 이 장의 초반 부분에서만 얼마나 많은 다른 제목이 나오는지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불립니다. 그 사람은 기름부음받은 자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힌트는 구약성서, 특히 이사야 61장과 다니엘 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선지자인지 묻는 질문을 받습니다. 선지자라는 용어는 아마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다른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며, 그 선지자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하는 신명기 18장의 본문을 가리킬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 표현은 예수께서 그곳에서 군중을 먹이신 후에 요한복음 6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처럼 올 메시아적 인물, 즉 선지자에 대해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장에서 두어 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며, 아마도 최소한 그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암시할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서 침묵하는 어린 양의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독자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대리인이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랍비라는 용어는 단순히 나의 선생님이나 나의 위대한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41절에 다시 메시아가 나옵니다. 49절에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51절의 인자는 아마도 다니엘 7장을 다시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제목은 매우 중요하며 그 중 많은 제목이 나중에 John에서 나올 예정이며 우리는 이를 다시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을 찾았다는 말을 들으면 그 설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구약성서의 여러 구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되돌아보며 요한이 읽었던 방식으로 읽으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더 잘 보고 싶었을 때, 그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그가 선지자인지 물었고 그가 아니라고 대답했다면 그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40장과 신명기 8장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이사야 53장. 요한복음 1장 32절과 33절은 영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른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2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에게 어떻게 자신의 영을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장 41절의 메시아에 대한 언급은 다니엘서 9장 25절과 다른 본문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은 창세기 28장 12절과 그곳에서 야곱이 겪었던 경험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2장 3절에서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데 이는 아마도 시편 104편과 15절에 대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물과 포도주가 여기 있는 어떤 것을 상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이 기적을 듣는 것은 단순히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 즉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면서도 예언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적어도 그럴듯합니다.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물에 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많은 장에서 사용되었으며 여기 2장을 지나면 물은 매우 좋은 것, 매우 긍정적인 것이 됩니다. 아마도 에스겔 36장과 같은 구약의 이미지가 그 뒤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깨끗한 물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과 영적 순결은 여기 에스겔 36장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4장, 그리고 3장과 5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려고 세례를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정결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씻는 것은 성례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창조하신 영적 정결과 영적 부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와인은 어떻습니까? 글썄요, 우리가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술에 대한 현대 문화적 견해를 잠시 제쳐두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포도가 많이 맺히고, 포도를 먹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당시의 축복이 아니라, 예언적인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요엘서의 일부 구절을 읽기 시작한다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미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될 때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묘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번영. 그 번영의 일부는 풍부한 포도주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이 술 취함과 술의 남용을 정죄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잠언과 선지자에서 술 취함이 얼마나 죄이며 피해야 하는지에 관해 많은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는 현대 문화에서 알코올 중독의 결과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남용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풍성한 포도주로 이스라엘을 풍성히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나의 예언서와 1장 14절부터 18절의 모세와 예수님의 비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미래가 단순히 의식적 순결의 문제가 아닐 것임을 말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물이 가득 담긴 돌항아리가 정결 의식의 문제로 사용되었던 방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따르면,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의식 정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 의식의 문제입니다. 그 자체도 나쁜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축복의 포도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이 이스라엘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말론적 축복의 새벽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요한복음에서도 물은 매우 좋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물에게 말씀하시는 방식과 특히 요한복음 7장에서 물이 사용되는 방식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것이 됩니다. 37절 이하.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또 다른 것은 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2장 1절에서 마리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지 않고 단순히 예수의 어머니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거의 꾸짖습니다. 사실 그것은 질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리두기 표현이다.

여자야, 왜 나를 끌어들이는 거지? 아니면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사업을 처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물을 한잔 마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의 요점은 내가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려한 실증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구속, 수난, 부활절에 대해 말합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여기서 매우 노골적인 방식으로 기적적인 힘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공을 너무 빨리 진행하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약간의 꾸짖음이 아니라 Mary에게 이것이 꼭 내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에서는 예수께서

문제를 처리하실 때 큰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 한 잔 더. 기분 전환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내어 이 구절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시간이 여러 번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날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12장에서는 그분의 시간이 이르렀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난과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시간은 2장, 7장, 8장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루살렘의 시간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용어는 요한복음에서 앞날, 하나님의 종말론적 미래, 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묘사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일종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요한복음 5장과 16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 경고하실 때, 그분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시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이것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한 이 말씀들은 모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표징과 관련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것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 그리고 이 표징을 통한 그분의 영광의 나타남이 어떻게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올 장들에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요한 신학의 핵심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모임, 요한의 간증과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장 12절까지입니다.